시 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가는 것이다

조 영 서
계수초등학교 교사

2025년 11월.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한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그러나 이 익숙한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숨어 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들은 시간이 넘쳐난다고 믿는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못하면 다음이 있지라며, 시간이라는 그릇은 끝이 없는 줄 안다. 놀다 보면 해가 지고, 책을 덮으면 밤이 되고, 한 해가 끝나도 그저 또 다른 한 해가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한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시간이란 원래 그렇게 흐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안다. 아침에 흘린 10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한 달의 선택이 한 해의 무늬를 바꾸며, 무엇보다 어릴 때 사용한 시간이 평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이 불변의 진리를 아직 모른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일 말이다.

아이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써 가야 하는 삶의 재료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학교들은 시간표로 촘촘히 구성돼 있다. 40-50분 단위로 수업이 나뉘고, 쉬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배치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늘 주어진 것으로 느껴질 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험이 부족하다. 누군가 정해준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 마련해 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진다. 결국 아이들은 오늘도 똑같이 지나간 하루라고 생각할 뿐,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또 다른 하루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지점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 관리법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진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가 1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육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채우는 시간보다 머무는 시간과 쌓이는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만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간만큼, 배운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루에 10분씩 매일, 1년, 2년 동안 해나가는 것이 쌓여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빠른 학습, 빠른 성과, 빠른 결과, 보여주기에 급급한 교육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이들은 시간이 속도가 아니라 질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 경험, 오랫동안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실패한 뒤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읽은 책들을 꾸준히 기록하며 자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순간, 이런 시간은 시험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지만, 아이들의 성장에는 가장 깊은 기록을 남긴다. 교육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다시 시간의 가치를 돌아본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시간은 우리 손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는 학생에게만 필요한 깨달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교육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가는 것이란다." 아이들이 이 문장을 이해하고, 배움의 자세를 바꾸고, 삶을 채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

현장칼럼

'나답게 크는 아이'의 따뜻한 이야기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우리는 흔히 아동들의 성장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곤 한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남들보다 빠른지 혹은 느린지로 기준을 정하고 아이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아동은 달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아동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자기만의 길을 찾아간다. 경계선 지능 아동(지능지수 IQ 71-84)은 바로 이 '조금 느린 걸음'을 가진 아동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학습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 작은 좌절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들은 각자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빛깔이 드러나는 순간은 조금 늦게 찾아올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재촉하는 경쟁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어른들의 지지와 따뜻한 시선이다.

광주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복권기금으로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나답게 크는 아이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너의 속도로 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가고 파견전문가들과 함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손이 그림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고, 말없이 뒤에 서 있던 아동들이 춤과 다양한 신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함께하는 경험은 아동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무엇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순간은, 아동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한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변화는 아동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동들의 성장 자연스레 사회의 시선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경계선 지능은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라는 사실, 그 특성이 아동의 가능성을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편견 속에서는 아이들이 움츠러들지만, 지지 속에서는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아동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바라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모여야 비로소 더 포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그 길을 열고 있다. 파견전문가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웃는 동행자로서 곁에 서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동들은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딛으며,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느려도 괜찮다, 너의 속도로 걸어라."라는 메시지처럼, 조금 느린 아동들의 걸음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 걸음을 기다려주고 지켜봐 줄 때, 아동들은 자기만의 색으로 세상을 채우며 성장하고, 어른들의 따뜻한 동행은 그 길을 또 하나의 희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참된 가치를 일깨울 것이다!

독자투고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는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로 1년 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열기구와 난방기기를 사용 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소방청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화재예방 홍보와 안전 실천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지난 겨울철(2024년 11월-2025년 2월) 여수소방서 관내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52%, 기계적 요인이 20%, 전기적 요인이 13%를 차지했다. 특히 부주의를 제외하면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43%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전열기구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 시설문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을 더 키우는 요소이다.

주거시설에서 증가하는 '전기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주거시설에서 난방기구와 멀티탭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가 두드러지고 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낡은 멀티탭을 계속 사용하거나, 여러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습관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주요원인이 된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전기화재 예방의 핵심이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와 전열기기 사용량이 늘어 전기과부하·과열·누전 등 전기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콘센트 과열, 노후 멀티탭, 단락(합선)등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 '나부터 불조심!', 작은관심이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예방은 일상의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정마다 소화기·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에는 '꺼짐'을 두 번, 콘센트는 '깨끗이'를 세 번 확인해야 한다.

정리정돈과 전기기구의 올바른 사용은 큰 재난을 막는 출발점이다. 우리 모두 '나부터 불조심'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김상완㈜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소방사>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표류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정치권 책임 환기해야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했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미뤄지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준공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예산 부족에 연약지반 문제가 겹쳤다.

2023년 11월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첫 삽을 뜬 광주 시험장은 사업비 328억원으로 추진됐으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비상주 감리 상주화 등에 따라 82억원의 추가 요인이 발생했다. 연약지반에 투입될 암석은 광주도시공사를 통한 무상 지급으로 해결했지만 국비 확보에 성패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손혜진 광주 북구의원은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실질적인 공정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며 질책했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없다. 주요 선거마다 단골 공약에 오른 오랜 숙원이다. 1997년 전남 나주시로 이전된 이후 시민들은 28년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도 크고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비용도 부담이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밀려드는 방문자로 나주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 단적으로 올해 광주·전남지역 갱신 대상자는 31만300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다.

신축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전체 4만210㎡ 부지에 자율주행 등 AI센터 설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첨단 시설을 구비하게 된다. 140만명 인구의 광주시와 전남도 북부권인 장성·담양·영광·함평 등 주민에게 면허 민원, 시험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이용자가 50여만명으로 예상되면서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단은 국회와 경찰청,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서 2년을 늦춘 2027년 준공도 예산 마련을 전제로 했다. 정치권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대로 차일피일이어선 안 된다. 시민들은 언제 완공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광주 시험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고의 휴식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속한 건립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개관 10주년 ACC 지역사회와 소통·상생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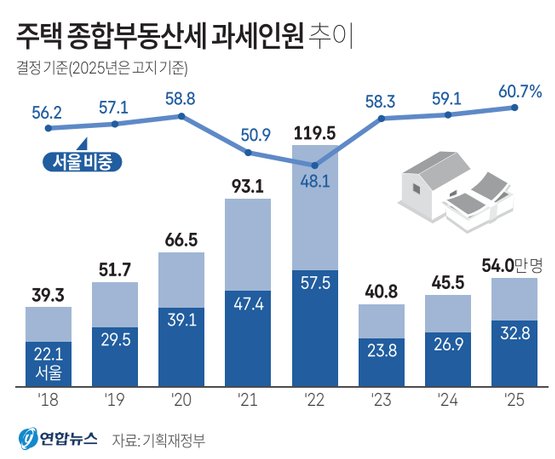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를 주제로 한 기념식을 통해 김상욱 전당장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으로 시민이 함께 만든 문화의 장이자 문화발전소 역할,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누적 방문객 수는 해마다 늘어 2천200만명이 달하고, 월간 45만명 최고 기록도 썼다. 지난해엔 300만명을 넘어서 320만명이 찾았다.

2015년 출범 이후 제공한 콘텐츠는 모두 2천207건에 이르며, 이 중 약 80%가 자체 창·제작물이었다. 특히 올해 아시아 민주·평화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전시 '봄의 선언'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 연작인 '제비노정기'는 미디어 판소리극의 새 지평을 열었다. 또한 아시아 21개국을 대상으로 문화자원 조사·수집 사업을 진행해왔다. 복합 거점으로 도약한 자신감으로 ACC는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루브르·메트로폴리탄·대영박물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을 즐기기 위해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명소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상징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는 보금자리가 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ACC가 광주와 아시아의 문화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향성으로 설정한 것처럼 지역사회 문화·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해 상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풍부한 인프라 자원을 시민들과 폭넓게 공유하며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결해야 한다.

ACC는 연간 방문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알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를 실현할 핵심 시설이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역량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초대전으로 지역 작가의 실험성과 대중적 호응을 확보한 바 있다. 특화된 기획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에 달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 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에는 120만명에 육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등을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만9천명에서 32만8천명으로 약 5만9천명(21.0%)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천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3천원(10.5%)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6천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원(6.1%)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천명으로, 작년(54만8천명)보다 14.8%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